



하나금융그룹, '하나 웨이브스' 컨퍼런스 성료

하나금융그룹이 2024년 하나 웨이브스(WAVEs)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하나 웨이브스(HANA WAVE S)'는 지난 2021년 출범한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여성리더 육성 프로그램으로, 올해 선발된 4기 직원 22명을 더해 총 120명의 직원이 '하나 웨이브스'를 수료했다. 함영주 회장 등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에스오일토탈에너지스유탄유, 김장 나눔 봉사활동

에스오일토탈에너지스유탄유는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전문기관인 에코생활협동조합과 함께 '겨울맞이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패트리스 드베미 대표를 비롯한 에스오일토탈에너지스유탄유 임직원들이 에코생활 봉사자들과 함께 유기농 재료로 약 700kg의 김장 김치를 정성껏 담고 포장했다. /에스오일



애경케미칼, 지역사회 김장김치 후원 등 나눔 실천

애경케미칼은 사회공헌이 기업 가치 향상에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매년 다양한 나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애경케미칼은 매년 취약계층에 사랑의 쌀 나눔 활동을 해왔으며, 생활용품 지원, 돌봄 인력 지원, 복지시설 환경개선, 김장김치 후원 등 지역 상생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애경케미칼

산업인력공단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 '장관상'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2024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중소기업부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산업인력공단은 ▲연간 90만명의 국가자격 수험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해주는 가치드림서비스 운영 ▲중소기업·지역주민이 신기술을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는 K-하이테크 플랫폼 운영 등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광동제약

'지역사회공헌인정제' 대상

광동제약이 '2024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꾸준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그 공로를 인정하는 제도다.

광동제약은 3개 영역, 25개 지표에 따른 정량·정성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했다.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기후변화 대응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청하 기자 mlee236@

'글로벌 디지털 초월대상' 시상식·컨퍼런스

SW·ICT총연합회, 'ACx' 기반 미래 방향성 제시

(인공지능전환)

김인현·박윤지 대표 대상  
조풍연 회장 "기술 발굴 총력"

'2024년 글로벌 디지털 초월대상'에서 제품(기술·서비스)부문 대상에 디지털전환 컨설팅업체인 투이컨설팅 김인현 대표가, 초월 인재 부문에선 클라이온의 박윤지 대표가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소프트웨어·정보통신기술(SW·ICT)총연합회는 25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4년 글로벌 디지털 초월대상 시상 및 컨퍼런스'를 열고 SW·ICT분야에서 기술발전에 기여한 기업 및 기업인들에 대한 시상식과 기술교류를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SW·ICT총연합회, 메트로경제신문 및 전자신문이 공동 주최한 행사로, 올해로 두 번째 개최됐다.

이날 시상 및 컨퍼런스에서는 제품부문에 투이컨설팅, 인재부문에 박윤지 대표가 선정된 것을 비롯해 13명의 기업체·기업인들에 대한 시상식이 이어졌다.

초월 제품부문에서는 혁신상에 고열전도성 IMS를 개발한 매그나텍 박선후대표, 복지서비스 조사시스템을



25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2024년 글로벌 디지털 초월대상 시상 및 컨퍼런스'에 참석한 주요 기업 및 협단체장들이 디지털 초월대상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메트로경제

개발한 디아이정보기술의 우동영 대표, TCMS를 개발한 와이즈와이어즈의 조경휘 대표, 스트림Docs를 개발한 이파피루스의 김정희 대표, 화이트디펜더를 개발한 에비리온 홍승균 대표, KEENEAT를 개발한 칠로엔의 조성인 대표, 라온 K업로드 2018을 개발한 라온위즈의 류충희대표가 각각 혁신상을 수상했다.

초월 제품부문 도전상에는 닥터아몬드를 개발한 아몬드의 나윤후 대표가 상을 받았다. 초월 인재부문에서는 박윤지 클라이온 대표가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혁신상에 틸드코리아 백성주 대

표, 가덕씨앤에스의 서배선 대표가 상을 받았으며 소프트보울의 이태규 대표가 도전상을 받았다.

이어진 컨퍼런스에서는 2개의 트랙으로 나누어 인공지능전환(ACx)을 주제로 한 '디 에지 오브 ACx: AI, 클라우드 비즈니스 성공전략'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다.

이에 앞서 기조강연으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AI) 황종성 원장이 'AI 전환 시대 정부 혁신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인공지능이 열어갈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조풍연 한국 SW·ICT총연합회장은 "현재 SW 및 ICT 분야의 조달쇼핑몰 등록 및 우수조달품, GS, CC, CSAP 등 각종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 2만개를 넘고, 2022년 수출금액도 208억달러를 넘을 정도로 이들 기업이 전문화된 일자리와 풀뿌리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하려면 ACx분야의 R&D 예산 40조원, 공공·민간 판로 20조원을 열어야 한다"며 디지털 초월대상을 통해 SW와 ICT 기술 발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휘중 기자 yhj@metroseoul.co.kr

LG전자

'서비스 올림픽' 성료

세계 각국 LG전자 서비스 매니저들이 수리·상담 등 종합 서비스 역량을 겨루는 '서비스 올림픽'이 최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26일 LG전자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석 달간 진행한 2024 서비스 올림픽 '에 총 1400여명이 참가했다.

서비스 매니저들은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TV, PC·모니터, 소형가전, 가전케어(세척서비스) 등 다양한 부문에서 빠르고 정확한 수리 및 케어 실력을 겨뤘다. 아울러 고객상담, 고객응대 등 실제 서비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뽐냈다. /구남영 기자

부음

▲도윤흥씨 별세, 도건필, 도연희, 도유경, 도유라 부친상, 이상규(나노캠텍, 한일오닉스 회장) 빙부상 = 11월 26일, 서울한양대학교병원장례식장 6호실, 발인 28일(02) 2290-9442.

▲도윤흥씨 별세, 이상규(나노캠텍·한일오닉스 회장)씨 빙부상 = 27일, 한양대병원장례식장 6호실, 발인 28일, 02-2290-9442

▲김대열(전라북도체육회 (전)상임부회장)씨 별세, 본인상 = 26일 오전, 전북대병원장례식장 3호실, 발인 28일, 063-250-2441

▲홍성은(주)디블렌트 대표)씨 별세, 홍은표 손희현씨 자녀상, 홍성해씨 형님상=26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발인 28일, 02-3410-3151.



한국거래소, 회원사 대표이사 간담회 개최

한국거래소는 '2024년 하반기 한국거래소 회원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간담회는 25~26일 양일간 진행되었으며 상장심사 효율화 방안 및 성과, 코스닥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은보 이사장(앞줄 가운데) 등 회원사 대표이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삼성, 충북에 12번째 '희망디딤돌' 새겼다

충북센터 개소식... 100여명 참석

우리 사회 복지 사각지대인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12번째 '삼성희망디딤돌'이 새 문을 열었다.

삼성은 26일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삼성희망디딤돌' 충북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

개소식에는 충북센터에 입주한 자립준비청년들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송재봉 의원,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CR 담당 사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청주 흥덕구에 위치한 희망디딤돌 충북센터는 자립 생활관 15실, 자립 체험관 5실과 교육 운영 공간 등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삼성희망디딤돌' 충북센터의 전경. /삼성전자

을 갖췄다. 충북센터 운영은 충북아동복지협회에서 맡는다.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들은

자립 생활관에서 최대 2년간 1인 1실로 거주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조만간 종료되는 만 15~18세 청소년들도 자립 체험관에서 며칠간 거주하며 자립준비 생활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다.

삼성희망디딤돌 센터는 2016년 부산을 시작으로 총 12개 지방자치단체에 센터 15곳으로 늘어났다. 내년에는 인천센터를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센터에서는 요리, 청소, 정리수납과 같은 일상 생활에 필요한 지식은 물론, 금융 지식과 자산관리 등 기초 경제교육, 진로상담과 취업알선 등 교육도 실시해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